

10월 광고시장 상승세 이어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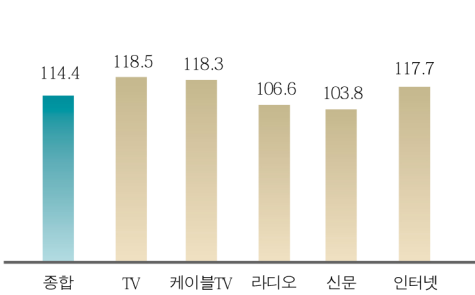
10월 국내 광고경기는 9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월별광고경기지수(KAI)가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과는 전체 광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광고비가 감소됨을 예측하는 것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250 기업을 대상으로 KAI를 조사한 결과 10월 예측지수가 114.4로 나타나, 전월인 9월에 비해 10월 광고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해외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월 광고 성수기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 118.5, 신문 103.8, 케이블TV 118.3, 라디오 106.6, 인터넷 117.7로 조사 대상 매체 모두 전월 대비 광고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및 보건용품(161.9), 건설·건재 및 부동산(156.1), 수송기기(148.3) 등의 업종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식품(63.8), 음료 및 기호식품(96.7), 가정용품(84.1), 유통(70.7)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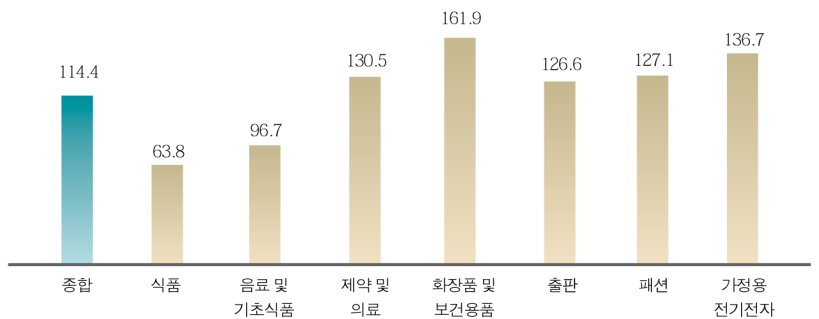
한편, 4/4분기 광고경기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합 지수는 114.6, 지상파TV 116.0, 신문 105.0, 케이블TV 111.8, 라디오 107.9, 인터넷 109.4로 나타나, 3/4분기 대비 4/4분기 광고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고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새로운 광고캠페인 전개(65.4%), 신제품 출시(35.6%), 계절적 요인(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표 3> 4/4분기 광고경기 전망

